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차이 분석

조배행* · 박종진**

Residents' Perception Differences on the Community Festival Impacts

Cho, Bae-Haeng* · Park, Jong-Jin**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지역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 지각을 관광관련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회교환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개발을 위한 정책 및 마케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산 인삼축제의 개최에 대한 관광산업관련 여부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각차이 검증 결과 관광산업 관련 집단의 긍정적 축제영향은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축제영향은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위 부담 보다는 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 개최시 관광산업 관련 여부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각차이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각각 별도로 수용하여 축제의 기획과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향후 지속가능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축제 영향, 지역주민 지각, 금산 인삼축제, 사회교환이론, 지역관광개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local residents towards the impact of Geumsan ginseng festival. This study was trying to examine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resident by tourism relatednes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for the Geumsan resident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was administered for the perception differences. Using social exchange theory, it was revealed that tourism relatedness was relatively useful to test the perceptions differences of residents towards festival impacts. Tourism related residents perceived positive impacts more strongly and negative impacts less strongly compare to non related residents. The result suggested that residents' perception of festival impacts was dependent on the level of tourism relatedness and implications are drawn for community tourism policy and management.

Key Words : impacts of festival, perceptions of residents, Geumsan ginseng festival, social exchange theory,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1. 서론

최근 들어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종래 호텔, 항공 등에 한정되어 있던 관광산업 분야는 이벤트, 컨벤션, 지역축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역축제를 관광상품화 하여 해당지역의 개발 수단으로 전략화하고 있는 바 외부의 방문객들을 유치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유도하고자 지역축제를 개발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지역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단합, 지역문화의 발굴과 체계화, 도·농간 및 국제간 문화교류의 촉진으로 인한 지역개발 잠재능력의 현실화 등 다양한 편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장주, 1998).

그러나 지역축제가 이러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관(官) 주도로 진행되고, 준비의 부족과 특색 있는 행사 부재로 인해 축제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획일화, 내용의 질적 저하, 유행에 편승된 일회성 과시형 축

* 우송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조교수, 대전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국제경영센터 608호, (042)630-9763(bcho@wsu.ac.kr)

** 우송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강사, 대전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국제경영센터 508호, (042)630-9762(tour012@paran.com)

제로 변모되어, 방문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까지 외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는 줄어들기보다 그 수가 증가하여 현재 일천여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국내에서 한 해 동안 개최되고 있는 것은 축제가 지역사회를 계몽하고, 지역주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미로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축제 자체의 수익성에 초점을 둔 민간 축제와 달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제갈 돈 등, 2006).

또한 그 동안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가 관광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행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측면에서의 연구가 거의 전무하였으며, 지역축제를 조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의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인구통계적 특성, 거시적 영향요인, 미시적 영향요인 및 지역사회의 영향요인들이 지역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함영덕, 2001).

관광상품으로서 지역축제는 단기간에 걸쳐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지역사회에 미치는 것으로,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30여 년간 관광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민의 지각(perception)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지역축제의 주체인 지역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축제 개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영향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반영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축제의 경우도 해당 축제의 개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축제 주최인 지역주민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축제 개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 특히 관광산업 관련 지역주민은 지역축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지금까지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이들 지역 주민의 지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을 원용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사회교환이론은 사회적 가치를 주고받는 교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은 관광영향을 기대 편익과 지불비용 측면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관광영향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을 관광관련 산업의 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분석결과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축제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고, 앞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의 정책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축제에 비해 지역의 특색과 이미지를 잘 살려 비교적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충청남도 금산군을 조사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금산인산축제는 산업형종합 축제이고, 또한 금산은 인삼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인삼 재배·판매 및 인삼을 이용한 식·음료 판매 등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은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분류하며, 그 외 인삼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집단은 단순히 축제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어 관광산업과 관련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관광영향에 대한 논의

지역축제는 지역의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지역축제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관광의 한 부문이므로 지역사회의 관광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관광영향(tourism impact)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관광영향’이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과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관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로, ‘관광개발의 영향’(impact of tourism development)과 동일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광충격’이라고

도 부르며, '관광효과'(tourism benefit)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관광영향의 지각'(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s)은 피관광 대상인 지역주민들(host residents)이 받아들이는 관광현상의 결과에 대한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동완, 2000).

관광영향은 실제적 관광영향과 지각된 관광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Belisel and Hoy, 1980), 지난 30여 년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Gursoy et al., 2002).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광영향은 지각된 관광영향으로 관광개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관광개발의 결과들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관광에 대한 태도와 구분할 수 있다(조배행·최영희, 2005).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역주민의 실제 행동의도와 관광활동 등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광영향은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생태·환경적 영향 등으로 나누어 검토되고 있다.

(1) 경제적 영향

관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관광영향에 대한 것이며, 일부 연구만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Andereck et al., 2005).

Haralambopoulos and Pizam(1996)은 세입증가,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확보 등이 관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부정적 지각으로 언급하고 있다.

Liu and Var(1986)에 의하면 고용 증대, 지역의 투자, 지역사업의 편익 등을 비롯한 증가된 고용기회와 삶의 질 향상(Gilbert and Clark, 1997; Johnson et al., 1994) 등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높게 지각되고 있는 만큼, 생활비의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광은 지역개발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개발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관광산업을 선택하면 고용과 소득을 발생시키므로, 개발이 잘

된 지역보다 훨씬 큰 주민복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정부는 관광업체 종사자, 관광사업체, 입장료, 봉사료 등에 부가되는 직접세, 관세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 정부소유 관광관련업체의 수입, 이자수입, 차관의 회수 등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이강재, 2001).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보통 단일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며, 관광분야에 의한 수입, 임금, 이익 등과 같은 자료를 국민총생산, 국가적인 고용 등과 같은 핵심적인 경제지표와 비교하는 개략적인 방법은 관광효과를 피상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Fletcher, 2000).

(2) 사회문화적 영향

지역주민들은 주로 관광이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 Dogan(1989)은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인 특징 변화를 취미, 일상생활, 사회생활, 종교, 가치 등에서 찾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신적 긴장에 이르게 하거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 약화, 물질주의, 범죄율 증가, 사회적 대립 및 혼잡 등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관광을 통해 나타난 공동의 혜택으로 추가된 공원시설, 휴양 문화시설, 문화적 활동 장려 등이 제시되었다(Brunt and Courtney, 1999). 그러나 높은 관광 성장률에 비해 기획과 경영이 빈약하다면, 지역주민의 정체성 및 고유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Rosenow and Pulshipher, 1979).

Liu and Var(1986)에 의하면, 주민들은 관광의 긍정적 문화적 혜택에 대해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관광의 사회적 비용과 범죄 증가율에는 관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주민은 문화유산 개선(Gilbert and Clark, 1997), 생태공원 개발(McCool and Martin, 1994), 레크리에이션 기회 증대(Perdue et al., 1990) 등에 대한 관광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의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은 전통가족의 와해, 문화의 상품화(Cohen,

1988), 범죄(Tosun, 2002), 도덕적 해이(Lankford, 1994; Mok *et al.*, 1991), 도박(Pizam and Pokela, 1985), 공공자원 및 시설의 파괴(Brunt and Courtney, 1999; McCool and Martin, 1994), 지역주민의 불친절(Liu and Var, 1986)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3) 환경적 영향

관광은 종종 깨끗한 산업으로 간주되나 부적절한 신규 관광 개발을 통해 기존 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지역개발정책은 주로 관광객의 요구에 의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관광산업은 자체의 발전가능성을 위해 부지불식간 기존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Doggart and Doggart, 1996).

Andereck(1995)에 의하면, 잠재적인 환경적 영향은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오·폐수, 화학비료, 오일누수 등의 수질오염, 사냥, 낚시, 자연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인한 야생생태의 파괴, 산림과 식물의 파괴, 과일 표본채집과 산불, 식물의 훼손, 토양, 해변 및 습지대의 파괴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Liu and Var(1986)에 의하면, 관광 개발에 동의한 사람들은 공원과 휴양시설의 증가, 도로 및 공공시설의 향상 등이 이루어진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관광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통문제, 휴양지의 혼잡, 공원의 평화로움 파괴 등이 개발로 인해 야기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접촉(Perdue *et al.*, 1990), 보다 많은 공원과 휴양시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McCool and Mrtin, 1994; Perdue *et al.*, 1990)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2)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사는 모든 곳에는 축제가 있다. 축제는 주로 종교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개인이나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나 기간에 행하는 의식과 부수적인 행위들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의미

보다는 놀이, 휴가와 관계가 깊은 신규 축제들도 대부분 해당 공동체 사회의 문화전통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경모, 2002).

오늘날 지역축제가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지역축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유태, 2002). 근본적으로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된다면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김성혁 등, 2000). 그러나 축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축제의 본질을 손상하거나, 특색 없는 축제가 생겨나게 되고, 지역주민 및 사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지역축제이벤트는 지역문화의 총체적 표현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민들의 생활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해당 지역의 공동체 문화가 그 안에 응축되어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이벤트는 지역민을 하나로, 아울러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의 문화적 대응을 이끌어 지역사회 연대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의 경제발전 등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김병철, 1998).

이러한 지역축제는 재원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관광상품으로 연결되며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련산업을 육성시키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축제가 지방정부나 관련 단체에 의해 선호되는 이유는 축제이벤트의 개발이 기존의 다른 관광대상을 개발하는 것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관광자본력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시설 유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 구축이 필요하여 많은 비용 및 오랜시간이 요구되는데 반해 지역축제는 단기간의 기획도 가능하며, 비용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관광 수요의 기호 변화도 지역축제관광 부각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해 감에 따라 관광객들은 경관, 문화, 유적, 박물관 등을 관람하는 정적인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동적인 관광으로 취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정강환, 1999).

Getz(1991)는 문화이벤트로서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관광자 지출효과와 소득효과 및 고용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문화이벤트에 대한 직접 지출과 숙박비, 교통비, 식비, 관광상품 및 특산품 판매수익, 인근지역 관광에 대한 지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대규모 지역축제관광을 중심으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한 각종 투자는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고, 그에 따른 영향도 각기 다르게 미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향지각은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축제의 영향연구는 관광영향과 유사하게, 먼저 경제적 차원이 부각되어 진행되었고(McDonald, 1990), 이어서 사회적 영향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왔다(Hall and Selwood, 1989; Hall, Sewood and McKewon, 199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알아보는 데에는 한 정되어 있으며,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이벤트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Jeong and Faulkner, 1996; Soutar and McLeod, 1993), 내제된 삶의 질의 평가를 하는 의미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영향인식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 함영덕(2001)은 지역축제이벤트관광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지각을 중요도와 만족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관광산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관광객 유치, 지역비수기 극복, 지역특화산업 발전, 지역기반시설 정비, 지역민의 단합과 친목도모, 교육적 효과, 지역단체장 업적 평가, 지역문화예술발전, 국제교류촉진, 고용증대, 기존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주변 농수특산물과

의 연계성 항목 등에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김유태(2002)는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주민의 영향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나누어 인구통계적 특성 및 거주기간 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영향인 물가상승 효과에서 여자 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의 거주기간 정도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영향인 물가상승효과, 과소비성향 유발 등의 경제적 영향과, 범죄발생 증가, 미풍양속 저해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거주기간 10년 미만 집단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관광영향

사회교환이론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심리학 이론으로, 사회관계들로부터 각각의 관계들이 주고받는 보수(Reward)와 부담(Cost)에 관심을 갖는다. 보수는 관계로부터 얻는 것으로 특유성의 차원과 구체성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특유성의 차원은 어떤 보수의 가치가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의존되는가에 관한 것이며, 구체성의 차원은 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보수들과 충고나 사회적 안정과 같은 비구체적 또는 상징적 보수들 사이의 구분을 내포한다. 반면 부담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들이다(홍대식, 1988; 박미정, 2002).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용과 이익을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간행동을 가치 지향적 태도와 암묵적 기대의 이원구조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해석하고, 사회적 교환이 사회적 통합을 구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최은숙, 2006). 따라서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은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한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어떤 사물이나 행위가 자발적으로 옮겨간다는 것(Roloff M, 1981)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관계에서 얻는 결과가 이익(보수>부담)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수<부담)가 되는지, 특정 관계에서 계산을 염두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lau(1964)는 사회적 교환과 경제적 교환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교환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과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언젠가 보답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무감을 갖는 관계이며, 경제적 교환이란 물건의 거래와 같은 교환 대상물의 대응방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환과 경제적 교환과의 차이점은 받은 혜택에 대하여 보답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사회적 교환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보상을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이나 만족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라 보았으며, 부담을 일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일체의 요인들로 규정하였다.

사회교환 과정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욕구만족(Need Satisfaction)으로 행위자의 욕구만족은 사회적 교환과정 참여의 합리성을 제공하며, 욕구만족은 교환의 출발점이다. 둘째, 교환개시(Exchange Initiation)로 필요의 표출은 교환과정의 시작이다. 행위자는 욕구만족이 되었을 때 교환관계에 착수한다. 셋째,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인데, 교환관계는 전제조건과 관계형태 중 두 가지의 하부구성요소로 되어있다. 넷째, 교환관계의 전제조건(Antecedents of The Exchange Relation)으로 전제조건은 교환관계에 있어 기회나 상황을 의미한다. 다섯째, 교환형성(Exchange Formation)이다. 전제조건 충족은 교환관계를 형성시키는 환경을 창출하며, 쌍방 직접적인 전제조건 연계와 관련이 된다. 여섯째, 교환관계의 형태(Form of Exchange Relation)이다. 이 단계는 지역주민이 관광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일곱째, 교환거래평가(Transaction Evaluation)이다. 교환관계의 발전은 행위자들 사이에 교환거래를 가져오며, 교환관계와 교환결과 연계이다. 교환관계가 이루어지면 행위발생자 사이에 자원의 이동이 발생하고 결과가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교환의 결과(Consequence of Exchange)로, 교환결과의 평가가 있을 때 보상이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면 행위자의 필요는 충족되며, 이들의 행동을 강화시키고 미래 교환에 있어 계속적인 종사를 유도할 것이다(정승호, 2003 재인용¹⁾).

사회교환이론은 사회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관광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 지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목을 받아왔다(Ap, 1990, 1992; Gursoy *et al.*, 2002; Jurowski *et al.*, 1997; Madrigal, 1993; Perdue *et al.*, 1990).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기대되는 편익과 지불해야 할 비용의 측면에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관광개발에 따른 영향지각을 형성하게 된다. 이 편익과 비용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 모든 교환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 이론은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대두되었다(Gee *et al.*, 1989; Gunn, 1988; McIntosh and Goodlner, 1990; Murphy, 1983). 이 이론은 관광으로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를 다루기 때문에 지역주민 영향지각 측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강미희·김성일, 1998).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교환이론의 장점은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모두를 설명할 수 있고, 개별적 또는 집합적 수준에서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지각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Ap, 1992). Ap(1992)은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사이의 자원의 교환(Exchange of Resource)이 높고 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불균형 관계라 하더라도 주민 행위자에게 높을 때 관광영향은 지역주민에 의해 긍정적으로 보여 지고, 자원의 교환이 균형에서 어느 한 쪽이 낮거나, 또는 교환관계가 불균형일 때 관광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동완, 1998).

3. 조사 방법

1) 조사대상지 개요

충청남도 금산군은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www.

geumsan.go.kr). 금산군은 지리적으로 우리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충청남도에서는 최남단에 속하며, 영·호남의 관문으로서 대전, 충북 및 전북의 5개 군과 논산시에 인접되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칠백의총, 육백고지 전투, 임진왜란 및 한국전쟁의 격전 지역이었고, 문화적으로는 어필각, 태고사, 보석사, 향교, 백령성지 등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폐기농요, 금산좌도농악, 인삼축제 등의 향토문화 등에 대해서도 계승·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최근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한편 금산은 인삼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인삼이 지역 경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전국 인삼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산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인삼을 주제로 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인삼축제는 인삼경작인 개인별로 삼상제라 하여 인삼포를 완성하고 인삼의 새싹이 돌아오를 때 인삼을 재배토록 하여준 산신령께 감사드리고, 인삼밭의 피해를 막아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이 지금의 축제로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1년 현재의 축제 모습으로 시작된 금산인삼축제는 작년까지 25회째 개최되었고, 올해 2006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금산인삼축제는 금산인삼을 널리 선양하고,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로서 면모를 일신하는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www.geumsan.go.kr 참조하여 논자 재작성).

2)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 대상 지역인 금산군 지역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 시기는 금산인삼축제가 끝난 뒤인 2005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설문 조사자에게는 설문의 취지와 목적 및 유의점에 대해 충분한 교육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총 설문지 300부 가운데 불성실하거나 미 기재된 항목이 있는 설문지 48부를 제외한 252

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항목은 총 5개의 항목으로 5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서는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감정에 대해 각각 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금산인삼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24개의 세부항목으로 조사하였고, 네 번째 항목에서는 금산인삼축제의 만족도에 대해 2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는데 모두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은 대해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명목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설문지의 신뢰성 및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한 신뢰성(Reliability) 검증, 변수의 공통성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 관광관련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분석(t-test) 등을 수행하였다.

4. 분석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51.2%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와 30대가 33.7%와 28.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은 20대(20.2%), 50대(10.7%), 19세 이하(5.2%), 60세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제학포함)이 56.7%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중학교 졸업(제학포함) 이하도 21.4%로 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직업은 폭넓게 분포되었는데, 학생 19.0%, 자영업 15.9%, 회사원 12.3%, 농업 11.9%, 주부 11.5%, 기타 9.1%, 생산·기술직 8.7%, 전문직 7.5%, 공무원 2.4%, 판매·서비스직 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23	48.8
	여성	129	51.2
연령	19세 이하	13	5.2
	20세~29세	51	20.2
	30세~39세	72	28.6
	40세~49세	85	33.7
	50세~59세	27	10.7
	60세 이상	4	1.6
학력	중학교졸업 이하	54	21.4
	고등학교 졸업(재학포함)	143	56.7
	대학교 졸업(재학포함)	48	19.0
	대학원(재학포함) 이상	7	2.8
직업	자영업	40	15.9
	생산·기술직	22	8.7
	전문직	19	7.5
	회사원	31	12.3
	학생	48	19.0
	판매·서비스직	4	1.6
	공무원	6	2.4
	농업	30	11.9
	주부	29	11.5
	기타	23	9.1
가족 월수입	100만원 미만	52	20.6
	100~200만원 미만	98	38.9
	200~300만원 미만	69	27.4
	300~400만원 미만	21	8.3
	400만원 이상	12	4.8
현재 거주지	군북면	26	10.3
	금산읍	104	41.3
	금성면	7	2.8
	남이면	5	2.0
	남일면	4	1.6
	부리면	5	2.0
	제원면	49	19.4
	추부면	10	4.0
그 외의 지역	42	16.7	
현 거주지 거주기간	5년 이하	57	22.6
	6~10년	40	15.9
	11~15년	30	11.9
	16~20년	39	15.5
	21~25년	29	11.5
	26년 이상	57	22.6
출생지	금산군	149	59.1
	그 외의 지역	103	40.9
관광산업 관련 여부	관련 있다	96	38.1
	관련 없다	156	61.9

가족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 집단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산읍이 41.3%(1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제원면 19.4%, 군북면 10.3%로 나타났다. 거주지간은 5년 이하와 26년 이상이 동일하게 22.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출생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산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1%를 차지하였고, 이외 지역은 40.9%를 나타냈다. 한편,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있다 38.1%, 관련없다 61.9%로 관련 없는 집단의 표본이 더 많았다.

2) 요인 분석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에서 수행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경제 긍정·부정, 사회문화 긍정·부정, 환경 긍정·부정 등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총 24개의 세부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진 세부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을 지역주민과 관광관련산업 조사 여부에 따른 조작적 정의에 의해 현재까지 지속되어져 왔던 연구와 다른 의미로 함축될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신뢰도가 낮은 문항, 공통성이 0.5 이하인 문항, 요인 적재값 0.4 이상이 2개의 요인에 속해 있는 경우 등의 기준에 따라 7문항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17문항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6개의 부문별 구분에 따른 '경제 부정' 부분의 항목은 모두 제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는데,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각각 0.854, 0.817, 0.802, 0.757, 0.706으로 보통 이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요인 적재값이 높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 하는 직각회전(Varmax)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아이겐 값(Eigen Value) 1이상을 기준으로, 5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요인명은 각각 '지역경제이익', '자연경관향상', '지역사회

표 2.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요인 분석결과

구 분	영향 속성 항목	요인 적재값	공통성	분산 설명력 (%)	아이겐 값	요인별 신뢰도
요인 1 지역경제 이익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했다.	.776	.656	29.31	4.98	0.854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877	.793			
	지역경제가 튼튼해졌다.	.770	.675			
	지역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793	.696			
요인 2 자연경관 향상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의 여건이 개선되었다.	.787	.660	16.26	2.77	0.817
	지역의 자연공원이나 휴식시설 등을 이용할 기회가 늘었다.	.780	.712			
	지역의 공연, 전시시설이나 문화행사, 전시회 등이 늘었다.	.787	.691			
	거리의 외관이 정비되고 경관이 더 좋아졌다.	.713	.650			
요인 3 지역사회 향상	금산의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804	.718	10.03	1.71	0.802
	지역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847	.800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다.	.711	.672			
요인 4 환경오염 증가	지역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다.	.841	.742	7.49	1.27	0.757
	각종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842	.761			
	마을경관이 나빠졌다.	.685	.551			
요인 5 생활불편 증가	사생활이 빈번하게 방해되었다.	.837	.765	6.64	1.23	0.706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829	.775			
	교통체증이 증가하였다.	.671	.538			

주) 총 설명력: 69.73%

향상', '환경오염증가', '생활불편증가' 등으로 명명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69.73%로 나타났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검정치는 0.81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또한 2045.796,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영향력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목적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분석 데이터를 통해 관광영향 지각 요인을 독립변수로 축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여, 지

역주민의 어떤 관광영향 지각 요인이 금산 인삼축제에 대한 만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 2: 자연경관 향상과 요인 3: 지역사회 향상 요인 항목이 금산 인삼축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0.203이었고, VIF 값이 1.345로서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도 1.801로 자기상관 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차이검증

사회교환이론에 기초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

표 3. 관광영향 지각 요인과 축제 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회귀계수	Beta	t	P	VIF
상 수	1.124		4.176	.000	
요인2 : 자연경관 향상	.364	.281	4.525	.000*	1.345
요인3 : 지역사회 향상	.306	.237	3.815	.000*	1.345
F = 35.312 p = .000 R ² = .203 수정된 R ² = .197 D.W = 1.801					

* p<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냄

표 4.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따른 지역주민의 영향지각 차이

요인명	관련있음		관련없음		t 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 지역경제 이익	3.06	0.82	2.90	0.72	1.737	0.083
요인 2 : 자연경관 향상	3.27	0.69	3.15	0.75	1.423	0.156
요인 3 : 지역사회 향상	3.48	0.67	3.35	0.76	1.521	0.129
요인 4 : 환경오염 증가	2.68	0.69	2.81	0.66	-1.601	0.110
요인 5 : 생활불편 증가	2.92	0.75	3.11	0.73	-2.164	0.031*

* p<0.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냄

표 5.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지각 차이

설문항목	관련있음		관련없음		t 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축제의 발전을 위해 외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4.15	0.81	3.93	0.84	2.315	0.021*
축제의 개발 계획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4.30	0.67	4.09	0.75	2.380	0.018*
금산 인삼축제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4.30	0.67	3.09	0.77	1.744	0.082
인삼축제 개발은 대규모 관광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18	0.84	4.01	0.93	1.573	0.117
금산에서 인삼축제는 매우 중요하다	4.22	0.76	4.06	0.93	1.615	0.107
더 많은 관광객이 금산을 방문해야 한다	4.21	0.78	4.25	0.77	-.420	0.675
금산 인삼축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81	0.97	3.86	0.87	-.442	0.659
금산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이다	3.65	1.01	3.76	0.94	-.980	0.328
현재 금산지역은 관광지나 관광시설이 잘 개발되어 있다	2.64	0.92	2.75	1.02	-.970	0.333

* p<0.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냄

다른 지역 주민의 지역축제 영향지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관광산업 관련 여부에 따른 지역축제의 영향 지각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따른 지역주민의 영향지각 차이분석 결과 요인5: 생활불편 증가 요인에서만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표 6.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따른 지역주민의 감정지각 차이

설문항목	관련있음		관련없음		t 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금산 인삼축제를 생각하면 즐겁다	3.44	0.78	3.30	0.83	1.503	0.134
금산인삼축제에 흥미 또는 관심이 있다	3.66	0.83	3.39	0.75	2.948	0.003*
금산인삼축제만 생각하면 재미있고 기쁘다	3.39	0.86	3.15	0.80	2.383	0.018*
금산인삼축제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2.12	0.93	2.41	0.89	-2.762	0.006*
금산인삼축제를 생각하면 반감이나 실증이 난다	2.07	0.97	2.44	0.89	-3.376	0.001*
금산 인삼축제를 생각하면 부끄럽거나 창피하다	2.02	0.85	2.18	0.89	-1.571	0.118
금산 인삼축제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든다	1.96	0.98	2.06	0.90	-.922	0.357
금산 인삼축제를 생각하면 우울하거나 슬프다	1.96	0.92	2.03	0.86	-.683	0.495
금산 인삼축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2.51	1.14	2.43	1.08	.635	0.526

* p<0.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냄

관광산업과 관련 없는 집단에서 지역축제 개최로 인한 생활불편 증가, 즉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따른 축제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차이검증 결과에 의하면 '축제의 발전을 위해 외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축제의 개발 계획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의 항목에서 관광산업 관련자 집단의 평균값이 관련없는 집단에 비해 각각 높게 나타나, 관광산업 관련 집단이 비관련 집단에 비해 축제 발전의 필요성과 참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높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관광산업 관련여부에 따른 지역주민의 감정 지각 차이검증에서는 총 9개 항목 가운데 관광 관련 집단과 비관련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4개의 항목인데 '금산인삼축제에 흥미 또는 관심이 있다', '금산인삼축제만 생각하면 재미 있고 기쁘다' 등의 긍정적인 감정 항목에서는 관광산업 관련 집단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금산인삼축제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금산인삼축제를 생각하면 반감이나 실증이 난다 등'의 부정적 감정 항목에서는 비관련 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5. 결론

오늘날 관광분야는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지역축제, 박람회 및 엑스포(EXPO) 등의 다양한 분야와의 상생 발전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역축제는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 및 지역사회를 알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이벤트로서 관광분야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역축제 이벤트 개최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금산인삼축제 개최 후 금산지역 주민은 '자연경관 향상'과 '지역사회 향상' 요인을 축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나 시설 건설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에서의 축제를 비롯한 모든 관광개발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주민은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정책 담당자들은 아직도 축제 또는 관광개발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할 수 있다.

한편 관광산업관련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관광 관련자집단보다 비관련자 집단에서 지역축제로 인한 '생활 불편 증가', 즉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나 사회교환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태도의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축제의 발전을 위해 외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축제의 개발 계획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등의 항목에서 관광관련자 집단이 비관련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 감정의 차이검증에서는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관광관련자 집단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비관련자 집단에서 높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교환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 하나의 집단을 관광관련 집단과 비관련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인식 및 지각에 대한 차이를 알아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광관련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많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정적인 축제영향 지각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 축제개최를 통한 영향지각을 긍정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긍정적 경제 영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고용증대와 같은 관광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

등의 관광사업을 관리하게 하거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기 위한 각종 협의체 구성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가 기회 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관광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시설을 건립하는데 사용하거나, 현재 관광시설에 주민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역주민 할인제도 등을 실시하고, 비수기시에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쿠폰발행 등 지역주민이 여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긍정적 관광 영향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광산업 관련 집단은 긍정적 영향에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영향에서는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위 부담 보다는 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관련 집단은 관광산업 관련자 집단에 비해 지역축제의 긍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부정적 영향은 높게 지각하여 보수 보다는 부담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축제 개최시 관광산업 관련 여부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각차이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각각 별도로 수용하여 축제의 기획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 개최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지역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註

1) 고동완, 1998,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文 獻

강미희·김성일, 1998,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한국임학회지, 87(4), 620-630.
 고동완, 1998,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동완, 2000, 관광영향의 인식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역할, 국토계획, 35(4), 255-269.
 김병철, 1998,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연구, 강원개발연구원.
 김성혁·고호석·김순하, 2000, 지역축제 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선택속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31(1), 259-280.
 김유태, 2002,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 인식: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 2002, 메가이벤트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13(1), 261-277.
 이강재, 2001, 리조트 개발의 영향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모, 2002,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서울.
 이장주, 1998,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정도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강환, 1999, 이벤트관광전략, 일신사, 서울.
 정승호, 2003,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태도 차이,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배행·최영희, 2005, 관광개발 경과에 따른 안면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의 변화, 한국관광연구학회, 19(1), 165-182.
 제갈돈·이근수·송건섭, 2006,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차별화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2), 95-123.
 최은숙, 2006, 인정보상 요인이 자원봉사 행동의 지속도와 강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함영덕, 2001, 지역축제이벤트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대식, 1998, 사회심리학, 박영사, 서울.

- Andereck, K. L., 1995,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ourism: A review of recent research, In *Tourism,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77-81.
- Andereck, K. L., Valentine, K. M., Knopf, R. C. and Vogt, C. A., 2005,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1056-1076.
- Ap, J., 1990, Residents' perceptions research on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1), 16-21.
- Ap, J., 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665-690.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ley.
- Brunt, p., and Courtney, P., 1999, Host perceptions of sociocultural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 493-515.
- Cohen, E., 1988, Tourism and aids in Thai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467-486.
- Dogan, H., 1989, Forms of adjustment: Sociocultural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216-236.
- Doggart, C. and Doggart, N., 1996, Occasional studies: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in developing countries, *Travel and Tourism Analyst* 2, 71-86.
- Fletcher, J. E., 2000,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4), 514-529.
- Gee, C. Y., Mackens, J. C., and Choy, D. J., 1989, *The Travel Industry*, New York NY: Van Nostrand Reinhold.
- Getz, D., 1991, *Festival, Special event and Tourism*, New York: VNR.
- Gilbert, D., and Clark, M., 1997,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urban tourism impact, with reference to residents attitudes in cities of Canterbury and Guildford, *Cities*, 14, 343-352.
- Gunn, C. A., 1988, *Tourism Planning*, New York NY: Taylor and Francis.
- Gursoy, J., Jurovski, C. and Uysal, M., 2002,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 79-105.
- Haralambopolous, N., and Prizam, A., 1996, Perceived impacts of tourism: The case of Samo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 503-526.
- Hall, C. M., and Selwood, H. J., 1989 America's Cup lost: Paradise retained? The dynamics of hallmark tourist event. In *The Planning and Evaluation of Hallmark Events*, Aldershot: Avebury, 103-118.
- Hall, C. M., Selwood, H. J. and McKewon, E., 1996, Hedonists, ladies and Larrikins: crime, prostitution and the 1987 America's Cup, *Visions in Leisure and Business*. 14(3), 28-51.
- Jeong, G., and B. Faulkner, 1996, Resident perceptions of mega-event impacts: The Taejon International Exposition Case,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4, 3-11.
- Johnson, J., Snepenger, D., and Akis, S., 1994,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 629-642.
- Jurovski, C., Uysal, M., and Williams, R. D., 1997, A theoretical of host community resident reactions to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2), 3-11.
- Lankford, S., 1994,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tourism and rural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35-43.
- Liu, J., and Var, T., 1986, Resident attitudes towards tourism impacts in Hawaii,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 193-214.
- Madrigal, R., 1993, A tale of tourism in two cit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2), 336-353.
- McCool, S., and Martin, S.,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s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29-34.

- McDonald, S., 1990, *The 1990 Adelaide Festival: The Economic Impact, Methodology and Results*, Adelaide: The Center for South Australian Economic Studies.
- McIntosh, R. W., and Goeldner, C. R., 1990, *Tourism Principles, Philosophies*, New York, Wiley.
- Mok C., Slater, B., and Cheung, V., 1991, Residents attitudes towards tourism in Hong Kong,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10, 289-293.
- Murphy, P. E., 1983,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decision-making groups in tourism cent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1(3), 8-12.
- Perdue, R., Long, P., and Allen, 1990,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586-599.
- Pizam, A. and J. Pokela, 1985, The perceived impacts of casino gambling on a commun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147-165.
- Roloff, M., 1981, *The Social Exchange Approach*,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Rosenow, J., and Pulsipher, G., 1979, *Tourism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Media Publishing, Kansas City.
- Soutar, G. N., and McLeod, P. B., 1993, Residents' perceptions on impacts of the America's Cup,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571-582.
- Tosun, C., 2002, Host perceptions of impacts : A comparative tourism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 231-253.
- <http://www.geumsan.go.kr>
- 교신 : 박종진(우송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Correspondence: Park, Jong-Jin(Woosong University)
- (접수 : 2006. 12. 20, 채택 : 2007. 2. 8)